

카뱅 18조, 토스 8조... 플랫폼 날개 단 금융사 가치 급상승

금융 이슈리포트
금융의 가치 '상한가'



금융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금융이 플랫폼이라는 성장엔진을 장착하면서 기업가치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도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업체는 국내 금융사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플랫폼이나 글로벌 결제서비스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카뱅 상장 후 가치 30조원'...전 세계 인뱅의 성공모델

11일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3000원에서 3만9000원이다.

공모 희망가 하단인 3만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15조6783억원, 상단인 3만9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18조5289억원 규모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회사는 미국 소매여성 플랫폼 기업과 브라질 결

카카오뱅크, 글로벌 플랫폼 비교
상장 후 시총 예상치 31조 달해

제서비스 기업, 러시아 디지털 은행, 스웨덴 디지털금융 플랫폼 등 4곳이다.

상장 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배 안팎으로 현재 국내 은행주들의 PBR 0.4배 안팎보다 높지만 고평가보다는 저평가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SK증권 구경희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플랫폼의 공유 ▲엔택트 금융모델의 매력 ▲초기의 빠른 증자와 인프라 투자 ▲핵심사업의 적절한 선택과 집중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시가총액 예상치는 약 31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31조원은 주가가 공모 희망가 상단 대비 70% 가까이 올라야 한다.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

케이뱅크, 1.2조 유상증자 결정
주당 발행가, 액면가비 30% ↑

은행 1호 케이뱅크의 몸값도 뛰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5월 역대 최대규모의 1조20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당 발행가가 액면가 대비 30% 오른 것은 물론 그간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신규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을 비롯해 MG새마을금고가 대표 투자자(LP)로 있는 사모펀드와 JS프라이빗에쿼티와 신한대체투자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Co-GP)으로 결성한 사모펀드도 신주를 받기로 했다.

◆토스, 금융플랫폼으로 '데카콘' 눈 앞

토스는 투자유치를 할 때마다 기업가

토스, 지난달 4600억 투자 유치
유니콘서 '데카콘' 기업 눈앞

치가 뛰면서 '유니콘'이 아닌 '데카콘'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유니콘은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10억달러(1.2조원) 이상이 되는 것, 데카콘은 100억달러(12조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토스는 지난달 4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서 74억달러(8조2000억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8년 기업가치 10억달러(1조2000억원)로 국내 핀테크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됐으며, 3년 만에 기업가치는 7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토스는 지난해 투자유치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번 투자에는 국책 은행인 KDB산업은행과 미국 투자사인 알키온이 주요 투자자로 새로 참여했

카카오페이, 상장 후 시총 12조
美 페이팔 등 해외 3곳과 비교

으며,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그레이하운드 등도 추가 투자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금융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가 역시 이번 IPO를 앞두고 데카콘급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하단 기준 8조2131억원, 공모가 상단 기준 12조5512억원에 달한다.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미국 페이팔과 스쿼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플랫폼 기업 3곳을 선정했다.

/양상미 기자 smahnt@metroseoul.co.kr

특금법 앞두고 거래소, 신고요건 보완 분주

(가상자산)

빚썸, 해외거주 外人 가입제한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진행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영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업자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상장 가상화폐 정리 등을 진행 중이다.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빚썸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KYC)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 이행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가입 제한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필

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된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된 바 있다.

빚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거래소들의 코인 속아내기 작업도 한창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실명계좌 발급에 감점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거래소들이 종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프로빗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2종 상장폐지를 안내했다. 스테이블 코

인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이 발행량보다 적어진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에이프로빗 측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거래소들이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만큼 외화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기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빚썸 역시 지난 9일 애프터넬 프로토폴(FNB), 퀴비(QBZ) 2종에 대해 커뮤니티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코인원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 공개와 함께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알리기에 나섰다.

/이영석 기자 ysl@



'HMM 포워드(Forward)호'가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HMM

KOTRA, 수출기업 물류대란 해소 앞장

514곳 → 2268곳 '일괄지원' 확대
해외전시회·파워셀러육성 등 지원

KOTRA(코트라)가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대란 해소에 나선다.

코트라는 정부의 수출입 물류비상대응 대책에 발맞춰 물류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물류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 운송부터 현지에서의 풀필먼트 서비스(배송·포장·재고관리를 한 번에 하는 것)까지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재 수혜기업 514개사를 2268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코트라의 대표적인 물류 지원 사업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와 '수출바우처(국제운송서비스)'가 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전 세계 210여개 협력 물류사를 통해 현지 물류창고에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비자 또는 바이어가 주문하는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다. 코트라는 올해 초 우리 기업 4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 100개사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이를 받은 기업이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참가기업은 수

행 물류기업을 통해 해상·항공 등의 국제운송비를 바우처로 정산받을 수 있다. 현재 114개사가 국제운송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KOTRA는 향후 518개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지난 6월 14일부터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에 사용 가능한 '국제운송 바우처'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물류기업도 현재 45곳에서 1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코트라는 올해 한시적으로 해외전시회 ▲파워셀러 육성사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주요 해외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물류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이 이뤄진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파워셀러 육성사업에 선정된 온라인 수출기업들에게 최대 30%의 해외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300개사 이상이 물류지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참가기업 가운데 수출에 성공한 내수기업에게도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국제운송비를 전액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방통위, 쿠팡·배민 등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 막는다

온라인플랫폼이용자 보호정책 추진

정부가 악성리뷰로 피해가 큰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별점테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리뷰·별점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환불, 물리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뷰·별점제도 개선을 위

해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은 확대한다. 방통위는 쿠팡,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넷플릭스 등 9개 부가통신사업자를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확대할 바 있다.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리

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윈스톱 피해구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사법·민간 영역을 아울러 상담·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분석을 거쳐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순복 기자 sunbok@